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썬테크(21732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테크(217320)

고신뢰 비상전원 수요에 대응하는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06.04 기준)

대표자	이선휴
설립일자	1996년 5월 29일
상장일자	2015년 4월 29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주요제품	자기진단형 발전기, 영구자석 회전자 발전기 등

시세정보(2026.06.04 기준)

현재가(원)	16,99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78
발행주식수	1,050,000주
52주 최고가(원)	21,950
52주 최저가(원)	60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이선휴 외 4인, 조규수

■ 비상발전기 관급 수요 기반 민수·방산 비상전원 수요로 확장 중

선테크(이하, 동사)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전문 제조업체로, 영구자석 발전기 기술, 디지털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 기반 전압제어 기술, 매연저감형 발전기 제품을 중심으로 관급 · 민수 · 방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수요처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 조립, 생산, 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주문생산형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조달우수제품 인증과 맞춤형 기술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신뢰 비상전원 수요가 확대되는 민수 및 방산 분야로 적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 전력 안정성 및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성장하는 비상발전기 시장

목표시장은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시장으로, 공공시설 · 군부대 · 병원 · 데이터센터 · 플랜트 등 전력 연속성이 중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된다. 시장 성장은 법정 비상전원 설치 의무, 노후 설비 교체, 데이터센터 확충, 전력 안정성 요구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는 대용량 · 고효율 · 저매연 발전기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대체 기술 확산과 원가 변동은 리스크로 판단된다.

■ 자본 확충과 방산사업 강화, 데이터센터·대형 전력수요처 대응을 통해 성장 기회 모색 중

동사는 비상발전기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을 확충하고, 워드피에스 지분 확대로 방산사업 기반을 강화하였다. 향후 사업은 법정 비상전원 수요와 공공 · 군납 시장의 안정적 발주를 기반으로 하되, 데이터센터, 대형 산업시설, 연구개발센터 등 고신뢰 전원 설비 수요와 방산용 발전기 · 전원공급장치 수요가 추가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304.4	12.3	3.9	1.3	-4.9	-1.6	-13.2	-2.8	421.5	-346	2,440	N/A	1.3
2024	257.8	-15.3	-5.2	-2.0	-9.4	-3.6	-44.9	-5.3	518.9	-910	1,609	N/A	1.3
2025	215.3	-16.5	-18.9	-8.8	-21.6	-10.0	-63.8	-10.8	558.4	-1,240	1,919	N/A	0.7

기업경쟁력

공공조달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공공조달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급 시장에서 축적한 납품 이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보
주문형 발전기 설계·제조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량, 설치 환경, 배기·소음 조건, 전압 안정성 요구에 맞춰 발전기 세트를 설계·제작하는 프로젝트형 제조 역량을 보유하여 설계부터 생산, 시공, A/S까지 일괄 대응 가능
방산 전원공급장치 사업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속회사를 통해 대포병탐지레이더, 국지방공레이더, L-SAM 주전원공급유닛 등 방산 전원공급장치 사업을 진행 중, 특수목적 전원공급 시장으로 사업 적용처 확대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영구자석 기반 고효율 발전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자석 이중 여자제어 동기발전기와 영구자석 전원공급 DVR에 적용되는 기술로, 발전 효율과 전원 품질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
디지털 AVR 기반 전압제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AVR을 적용한 디젤발전기에 활용되는 기술로, 부하별 채널 선택, 전압 미세제어, 실시간 고장 진단 및 전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데이터센터·병원·공공시설용 비상발전기에 적합
매연저감형 디젤발전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압기능과 자동 바이패스 구조를 갖춘 매연저감장치 적용 발전기에 활용되는 기술로, 배출가스 저감과 운전 지속성을 요구하는 공공시설 및 친환경 규제 대응 시장에 적용

시장경쟁력

관급·방산·민수로 분산된 수요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급 시장, 데이터센터·플랜트·대형 건축물 중심의 민수 시장, 군 장비 전원공급 중심의 방산 시장을 동시에 보유해 단일 수요처 의존도 완화
데이터센터 및 고신뢰 전원 수요 대응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로 대용량·고신뢰 비상전원설비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의 전압제어·고효율 발전기술은 전력 안정성이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제품 전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젤발전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저매연·고효율 발전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사의 매연저감형 발전기와 녹색기술 기반 제품군은 전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경쟁 요소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p>가치(Value)</p>	 <p>희소성(Rarity)</p>	 <p>모방가능성(Imitability)</p>	 <p>조직(Organiz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자석 발전, 디지털 전압제어, 매연저감 관련 기술은 공공시설·데이터센터·방산 분야의 고신뢰·친환경 비상전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우수제품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방산 전원공급장치 납품, 영구자석 기반 발전기 특허를 보유한 발전기 제조사는 제한적이기에 일정 수준의 희소성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기 제조기술은 모방 불가능하지 않으나, 장기간 축적된 납품 실적, 인증 체계, 특허, 현장 맞춤형 설계·A/S 역량을 단기간에 복제하기는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품질·생산·영업 부서를 통해 연구개발, 인증, 생산, 납품, 사후관리 연계로 보유 기술을 사업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관급 기반을 바탕으로 민수·방산 비상전원 수요로 확장하는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전문기업

동사는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전문 제조업체로, 영구자석 발전기 기술, 디지털 AVR 기반 전압제어 기술, 매연저감형 발전기 제품을 중심으로 관급·민수·방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수요처별 요구사양에 따라 설계, 조립, 생산, 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주문생산형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공서·공공시설·군부대·대형 건설사·데이터센터·플랜트 등을 주요 고객군으로 확보하고 있다. 조달우수제품 인증과 맞춤형 기술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신뢰 비상전원 수요가 확대되는 민수 및 방산 분야로 적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6년 설립되어 2015년 4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으며, 발전기 제조 및 판매, 회전변환기 제조 및 판매, 변압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사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 대체 전력인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수요처별 요구사양에 맞춘 주문형 발전기 설계, 조립, 생산, 시공 및 사후관리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과거 중소형 비상발전기 공급 중심에서 발전기 용량과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고객사양 대응형 제작·납품 비중이 커졌으며, 관급·군납 시장을 기반으로 민수 대용량 비상발전설비 시장으로 영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조달우수제품군인 영구자석 이중여자제어 동기발전기와 디지털 AVR이 구비된 디젤 발전기, 코일발전기, 상품 및 A/S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고, 동사의 매출 기반은 단일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 비상발전기 본체, 전압제어 기술, 부대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다. 주요 고객군은 관공서, 공공주택, 발전소, 터널, 항만시설, 군부대, 대형 건설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연구개발센터(R&D Center), 오피스 빌딩, 민간아파트 등이다. 관급 및 군납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수 시장에서는 매출채권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고객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영구자석 발전기 기술, 디지털 AVR, 매연저감형 디젤발전기 기술, 조달우수제품 인증 기반의 공공조달 접근성으로 요약된다. 영구자석형 발전기는 기존 권선코일형 발전기 대비 출력 효율, 연료 소모, 유지관리, 전원 품질 측면에서 개선 요소가 있고, 매연저감장치는 매연저감 효율 및 감압 기능이 차별화 요소에 해당한다. 동사는 향후 저매연·고효율 발전기와 데이터센터·플랜트 용 비상발전설비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조달 기반의 안정성과 민수 대형 프로젝트 확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연월	내용
1996.05	법인 설립
2007.04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저압 발전기)
2010.07	ISO 9001, 14001 인증
2015.04	코넥스 시장 상장
2016.06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2020.04	(주)선테크와 (주)위드피에스 법인분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22.06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ISO 45001)
2022.09	녹색기술인증(디젤발전기용 소음 및 배압 저감 PM처리기술)
2024.07	조달우수제품 지정(감압기능을 탑재한 매연저감형 디젤발전기)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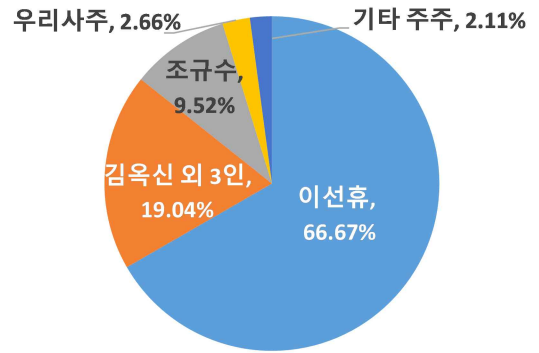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5년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선휴로, 전체 발행 보통주(1,050,000주) 중 700,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66.67%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김옥신 외 3인의 특수관계자가 199,950주(19.04%)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보통주의 지분을 합계는 85.71%이다. 한편, 주요주주 조규수가 100,000주(9.52%), 우리사주가 27,896주(2.66%)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2,154주(2.11%)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과반을 상회해 경영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 보유 비중도 유의미한 수준이므로, 향후 전환권 행사, 상환 조건, 추가 자본조달 여부에 따라 보통주 기준 지분구조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이선휴	700,000	66.67%	최대주주
김옥신 외 3인	199,950	19.04%	특수관계인
조규수	100,000	9.52%	
우리사주	27,896	2.66%	
기타 주주	22,154	2.11%	
합계	1,050,000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수요처와 매출 발생 구조를 기준으로 관급, 민수, A/S로 구분된다. 관급 사업은 공공기관, 관공서, 군부대 및 방산 관련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민수 사업은 대형 건축물, 데이터센터, 발전소·플랜트, 민간아파트 및 대형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A/S 사업은 납품된 발전기의 유지보수, 점검, 부품 교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반복 수요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급 사업은 안정적 매출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사업부문이다. 관급 시장은 비상전원 설치 의무, 공공조달 제도,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고, 동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제품과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발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표준형 및 본넷형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영구자석 이중여자제어 동기발전기, 디지털 AVR 적용 디젤발전기, 매연저감장치 적용 디젤발전기 등이다. 표준형 디젤발전기는 발전실이 구비된 공공건축물, 발전소, 연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되며, 본넷형 디젤발전기는 발전실이 없는 건물, 터널, 도로 구간 및 옥외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사용된다. 영구자석 발전기와 디지털 AVR 적용 제품은 전압 안정성, 효율성, 운전 신뢰성 등을 차별화 요소로 하며, 매연저감형 발전기는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제품군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용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산 관급 사업은 중속회사에서 추진하며, 대포병탐지레이더, 국지방공레이더, 비호복합 냉·난방장치 발전기, L-SAM 주전원공급유닛 등 군 장비용 전원공급 제품이 주요 제품이다. 일반 비상발전기보다 요구되는 신뢰성, 내구성, 규격 대응 수준이 높고, 특정 방산 프로젝트에 수요가 연동되어 매출 변동성이 있다.

선테크(217320)

민수 사업의 수요는 신규 건축물 및 인프라 투자, 설비 교체, 전력 안정성 확보, 전기료 절감 목적의 자가발전 수요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R&D센터는 정전 허용도가 낮아 대용량 비상전원 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대용량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및 전압제어 기술 적용 제품의 주요 적용처이다. 주요 제품은 표준형·본넷형 디젤발전기, 코일발전기, 영구자석 전원공급 DVR, 디지털 AVR 적용 발전기 등이고, 현장별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 조립,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주문생산형 공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A/S 사업은 납품 이후 발전기의 정상 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부문으로, 비상발전기는 정전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설비이므로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높다. 제품의 수명이 길고 공공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성능검사에 따라 교체 또는 유지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A/S 사업은 기존 납품 기반을 활용한 반복 매출과 교체 수요 발굴의 접점으로 기능한다. 주요 서비스는 발전기 점검, 시운전, 부품 교체, 운전반 및 전압제어장치 점검, 매연저감장치 유지관리, 고장 대응 및 성능 개선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3] 동사의 매출처 구분별 매출 실적(중속회사 매출 제외)

(단위 : 억 원, %)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관급	132.7	52.2%	67.1	43.3%	63.4	38.6%
민수	115.8	45.5%	82.4	53.2%	91.3	55.7%
A/S	5.8	2.3%	5.5	3.5%	9.3	5.7%
매출 합계	254.3	100.0%	155.0	100.0%	164.0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 방식은 일반 소비재형 유통보다 기술 기반 프로젝트형 영업에 가깝다. 비상발전기는 수요처의 용량, 설치 환경, 법규 준수 요건, 엔진 사양, 소음·배기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설비가 필요하므로, 동사는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해 거래처별 요건에 맞는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있다. 판매조직은 영업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계약, 구매,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생산사업본부가 생산, 납품, A/S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품질관리부는 검수, 인증, 심사를 담당하며 기업부설연구소는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수주 전 기술 대응, 납품 전 품질 검증, 납품 후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영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으로 판단된다.

발주 이후 고객사양에 맞춰 생산·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관공서 발주는 예산 확정 이후 2분기~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겨울에는 건설 관련 발주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발주가 감소하는 1분기에 일부 생산인력을 A/S 인력으로 전환하여 교체 수요와 추가 수요에 대한 영업을 병행한다.

경쟁 전략은 가격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시장에서 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등록, 사후관리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수시장에서는 저가 중국산 엔진 및 제품과 가격 경쟁이 존재하고, 중대형 디젤엔진의 수입 의존도와 환율 변동, 엔진 제조사의 가격 결정력은 원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는 이러한 제약을 고려해 관급·군납 기반을 유지하면서 대형 건설사, 데이터센터, 플랜트 등 신뢰성과 납품 이력이 중요한 고객군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전력 안정성 및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성장하는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시장

동사의 목표시장은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시장으로, 공공시설·군부대·병원·데이터센터·플랜트 등 전력 연속성이 중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된다. 시장 성장은 법정 비상전원 설치 의무, 노후 설비 교체, 데이터센터 확충, 전력 안정성 요구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는 대용량·고효율·저매연 발전기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ESS, BESS, HVO, 연료전지 등 대체 기술 확산과 원가 변동은 중장기 리스크로 판단된다.

■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디젤엔진 비상 발전기 및 고효율·저매연 비상전원설비 시장으로 정의된다. 해당 시장은 정전, 전력품질 저하, 전력 공급 중단 등 비상 상황에서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핵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수요처는 관공서, 공공주택, 발전소, 터널, 항만시설, 군부대, 대형 건축물, 병원,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 플랜트 등 전력 연속성이 중요한 시설로 구성된다. 이 시장의 수요는 신규 건축물 및 인프라 투자, 법정 비상전원 설치 의무, 노후 발전기 교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전력·고신뢰 시설의 확충에서 발생한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병원, 방산시설은 정전 허용도가 낮기 때문에 발전기의 기동 신뢰성, 전압 안정성, 장시간 운전 성능, 사후관리 역량이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장 구조는 내수 중심, 주문생산 중심,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특성을 갖는다. 비상발전기는 설치 장소, 용량, 배기·소음 조건, 전압 안정성, 법규 충족 여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므로 표준품 대량판매보다 고객별 맞춤 설계와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국내 고정식 발전기 시장은 2023년 7.2억 달러에서 2028년 11.8억 달러로 연평균 10.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고정식 발전기 시장도 2023년 189.6억 달러에서 2028년 24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업전원 수요, 상업·산업시설의 전력 안정성 요구,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 데이터센터 확충이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중소 발전기 제조업체 간 경쟁과 글로벌 엔진·발전기 기업의 간접 경쟁이 병존하는 경쟁 구조이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조달우수제품 인증, 신제품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여부가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형 민수 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납품 이력, 대용량 발전기 대응력, 소음·배기 저감, 유지보수 체계, 글로벌 엔진 및 주요 부품 조달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격 및 원가 측면에서는 엔진, 운전반, 영구자석, 판넬 및 기타 부품 조달이 핵심 변수이다. 비상 발전기는 엔진이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대형 엔진은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과 납기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구자석 발전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존재해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비상전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30년 약 945TWh에 도달해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도 2025년 50.4억 달러에서 2031년 162.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무정전 운영이 핵심이므로, 대용량 비상발전기와 전압제어장치, 정기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 공급업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비상 발전기는 정전 시 제한적으로 가동되는 예비설비의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전력망 부담 확대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온사이트 발전 및 분산전원 체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어 비상 발전기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 병원, 공장 등은 전력 공급 중단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 비상전원 설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상발전기가 전력 안정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운전시간 증가, 배출가스 관리,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용 디젤발전기는 높은 전력밀도와 빠른 응답 속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디젤발전기에 대해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도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젤발전기보다 배출 저감 성능을 갖춘 저매연 발전기와 후처리 장치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수소처리 식물성 오일), 연료전지, 천연가스 발전기 등이 비상전원에 대한 대체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HVO는 기존 디젤엔진을 활용하면서 탄소 저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환 비용 부담이 낮고, 연료전지는 장기적으로 무배출 또는 저배출 백업전원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용량·장시간 운전, 즉시 기동성, 초기 투자비,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디젤발전기를 전면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품 사양과 유지보수 요구가 고도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공공시설, 방산 장비는 정전 상황에서 즉각적인 기동과 안정적인 전압 공급이 필요하며, 소음·진동·배출가스 관리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기 본체 성능뿐 아니라 디지털 전압제어, 병렬 운전, 배기 저감, 원격 모니터링, 예방정비, A/S 대응력이 공급업체의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시장 변화는 동시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한다. 기회 요인은 데이터센터와 플랜트의 대용량 비상전원 수요, 공공조달 시장의 인증 기반 수요, 노후 발전기 교체 수요, 저매연·고효율 제품 전환 수요이다. 반면 리스크 요인은 건설경기 둔화, 공공 예산 집행 지연, 엔진 및 희토류 가격 변동,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 ESS·연료전지 등 대체 기술 확산 가능성이다. 따라서 동사의 향후 시장 대응력은 친환경·고효율 제품의 납품 실적 확대, 데이터센터 및 대형 프로젝트 대응 경험 축적, 원가 변동 관리, 사후관리 기반의 장기 고객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국내 고정식 발전기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글로벌 고정식 발전기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영구자석 발전·디지털 전압제어·매연저감 기술과 인증 기반 공공조달 경쟁력 보유

동사는 디젤엔진 비상발전기를 기반으로 영구자석 발전기술, 디지털 AVR 기반 전압제어기술, 매연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전압 안정성, 운전 신뢰성, 배출저감, 소음관리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발전기 효율 향상, 디지털 제어, 친환경 저매연 발전기, 방산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최근 데이터센터·공공시설·방산 장비 등 고신뢰 전원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수의 특허와 각종 인증을 확보해 기술 신뢰성과 공공조달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디젤엔진 비상발전기를 기반으로 한 영구자석 발전기술, 디지털 전압제어기술, 매연저감기술로 구분된다. 영구자석 이중 여자제어 동기발전기는 영구자석에서 생성되는 전력을 활용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깨끗한 전력 공급을 구현하는 구조를 갖는다. 해당 기술은 불평형 전압 분석과 유선 제어 방식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진상 부하에 따른 계자 상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AVR,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스위칭 소자, 멀티프로세싱 기능, 전압 및 여자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결합해 전원 품질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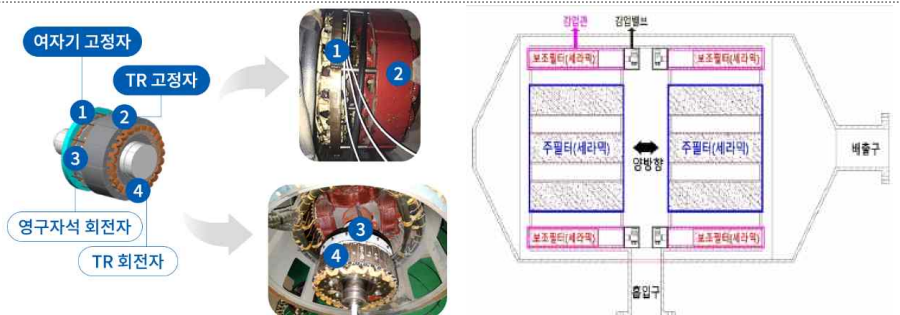
동사의 디지털 AVR 적용 발전기는 별도의 영구자석 전원공급기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외부 이상전류 및 고조파 영향으로부터 안정적인 전압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고신뢰 비상전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부하별 채널 선택, 미세 설정, 부하·용량·설치환경별 전압변동 특성에 따른 제어값 표시, 실시간 고장 진단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전기품질 확보와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이러한 특성은 데이터센터, 병원, 공공시설, 방산 장비 등 전압 변동에 민감한 수요처에서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연저감형 발전기는 매연 및 소음저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필터가 막힌 경우에도 운전 지속성과 매연저감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압기능과 자동 바이패스 구조를 적용하여 친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감압밸브 구동시스템을 적용해 전자식 제어 방식 대비 장기간 운전 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되고, 운전반 연동 알림 기능을 통해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배출 규제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된다.

수요처별 운전 조건에 맞춘 시스템형 제품 구현 능력이 동사의 기술적 강점으로, 설치 장소의 발전실 구비 여부, 고전력·고신뢰 수요처, 환경규제 대응 필요 여부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인증과 납품 실적 기반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휘되는 구조이고, 민수

고부가 시장에서는 대용량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글로벌 엔진 조달 안정성, 장기 유지보수 체계, 가격 경쟁력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동사의 기술적 차별성은 핵심 보유기술을 실제 대형 프로젝트 납품 실적으로 연결하고, 제품 신뢰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동사의 영구자석 이중 여자기 및 매연저감장치



자료: 동사 홈페이지, 동사 IR자료(2025.10),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기 설계, 전압제어, 매연저감, 방산 전원장치, 무정전 비상전원 시스템 등 비상전원설비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구조상 기업부설연구소는 개발 및 양산 기능을 담당하며, 품질관리부는 검수·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생산사업본부는 생산·납품·A/S를 담당한다. 이는 연구개발 결과를 제품화, 인증, 양산, 사후관리로 연결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의 방향은 과거 영구자석 회전자 발전기술과 자기진단 동기발전기술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친환경·디지털 제어·방산 전원장치로 확장되고 있다. 동사는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영구자석 회전자 발전기술 특허를 확보했고, 2007년 영구자석 회전자 발전기술에 대한 신제품 인증과 국제 발명 수상을 거쳤으며, 이후 자기진단 동기발전, ESS 무정전 발전시스템, 비호복합 냉방용 전원장치, 디젤발전기 매연저감장치, 하이브리드 여자 방식 발전기 등으로 개발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 연구개발활동은 시장 환경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데이터센터, 공공시설, 방산 장비 등 고신뢰 전원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압 안정성, 실시간 진단, 병렬 운전, 고효율 운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환경 규제 강화로 저매연·저배출 발전기 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신규 개발 추진 중인 저동력 고효율 발전기 관련 기술을 2026년 중 시제품 제작 및 양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발전기 제조 역량을 친환경·고기능 제품군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국내 특허를 중심으로 발전기 핵심 구조, 전압제어, 영구자석 여자, 매연저감, 신재생 연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요 특허는 발전기 및 전동기의 회전자, 발전기 또는 전동기를 위한 회전자, 보조코일을 구비한 발전기용 회전자, 역률보상회로를 구비한 발전기, 여자기 제어장치, 하이브리드 여자 방식의 발전기, 디젤발전기용 매연저감장치, 사용자 맞춤형 다채널 전압조정기를 포함하는 비상용 디젤발전기, 고장표시와 조치 기능이 구비된 전압조정기를 포함하는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이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첫째, 발전기 회전자·여자기·전압보상 구조와 관련된 기반 특허는 동사의 영구자석 발전기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둘째, 매연저감장치 및 고효율 전력전달 관련 특허는 친환경·고효율 비상전원설비 시장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다채널 전압조정, 고장표시 및 조치 기능, 복수채널 전압조정 등 제어 관련 특허는 디지털 전압제어 제품군의 기능적 차별화를 지원한다.

인증 현황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품질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사는 성능인증, 녹색기술, 녹색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2건, ISO9001·ISO14001·ISO4500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세계일류상품인증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조달우수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은 관급 시장에서 기술성과 품질 신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 체계는 동사의 기술을 매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판단된다. 비상발전기 시장은 단순 성능뿐 아니라 법규 충족, 인증, 납품 이력, 유지보수 체계가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와 인증이 곧바로 독점적 시장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조달시장 내 경쟁, 인증 갱신, 제품별 실적 축적, 대형 민수 프로젝트에서의 레퍼런스 확보가 병행되어야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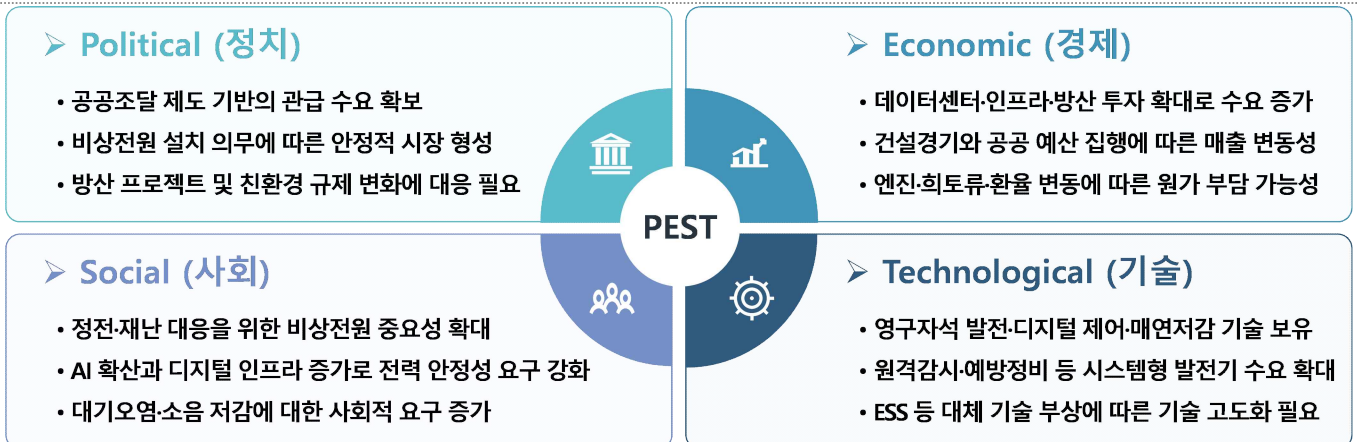
동사는 관급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전문기업으로, 공공조달 제도와 비상전원 설치 관련 법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공시설, 터널, 항만, 병원 등은 비상전원 확보가 요구되며,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녹색기술 인증 등은 공공시장 진입과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방산 체계업체, 군부대 등과 연결된 전원공급장치 수요는 국방 예산 및 방산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공공 예산 집행 지연, 조달제도 변경, 친환경 배출규제 강화는 매출 인식 시점과 제품 사양 대응 부담을 높일 수 있어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동사의 수요는 관공서, 공공주택, 발전소, 데이터센터, 플랜트, 대형 건물 등 전력 연속성이 중요한 시설 투자와 연동된다. 데이터센터 확충, 노후 발전기 교체, 공공 인프라 투자, 방산 전력공급체계 국산화 수요는 중장기 성장 요인으로 기대된다. 반면 비상발전기 시장은 건설경기와 공공 예산 집행의 영향을 받고, 관급 발주가 2~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도 존재한다. 엔진의 원가 비중이 높고, 중대형 엔진과 영구자석 소재의 외부 조달로 인해 환율, 엔진 및 희토류 가격, 납기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경제적 안정성은 관급 기반 매출 유지, 민수 대형 프로젝트 확대, 원가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 공급 중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공공시설, 방산시설 등에서 비상전원 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확산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안정성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난·정전 상황에서도 핵심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소음,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디젤발전기에 대해 저매연, 저소음, 고효율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동사의 영구자석 발전기, 디지털 AVR 발전기, 매연저감형 디젤발전기, 방음형 발전기 제품군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비상전원설비 시장은 고효율 발전, 디지털 제어, 배출저감, 원격감시, 예방정비가 결합된 시스템형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동사는 영구자석 발전기술, 디지털 AVR 기반 전압제어기술, 매연저감기술, 방산 전원공급장치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발전기 회전자, 하이브리드 여자 방식, 다채널 전압조정기, 매연저감장치 등과 관련된 특허와 인증을 확보하여 관급 및 방산 시장에서 기술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ESS, HVO, 연료전지, 천연가스 발전기 등 대체 기술이 부상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디젤발전기의 친환경 연료 대응, 하이브리드 비상전원 시스템, 대용량·고신뢰 전력솔루션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코일발전기 신규 매출 반영과 자본 확충으로 재무 안정성 제고 모색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304.4억 원, 2024년 257.8억 원, 2025년 215.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의 경우 코일발전기 매출이 신규 반영되었다. 수익성은 원가율 및 판관비율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순손실은 3개년 연속 이어졌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단기 유동성 및 차입금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동사는 2025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과 자본 확충을 도모하였다.

■ 코일발전기 신규 매출 발생

동사의 연결기준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304.4억 원, 2024년 257.8억 원, 2025년 215.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코일발전기 매출이 추가되었으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하였다.

주요 제품별 매출액(별도 기준)을 살펴보면, 조달우수제품(SGA, SESG, SDMG) 매출은 2023년 122.0억 원, 2024년 34.1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53.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코일발전기(SAS, SGP)가 2025년 70.2억 원 신규 매출로 반영되었다. 반면 기타 제품은 2023년 63.4억 원, 2024년 84.1억 원에서 2025년 2.9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상품 매출은 2023년 63.1억 원, 2024년 31.3억 원, 2025년 27.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A/S 서비스는 2023년 5.8억 원, 2024년 5.5억 원, 2025년 9.3억 원으로 확대되어 유지보수 기반 매출이 보완적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동사는 조달우수제품 회복과 코일발전기 매출 반영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주문생산 및 발주 집중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상발전기 수요가 관공서, 군납, IDC, R&D센터, 대형 시설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완만한 매출 성장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형 축소와 판관비 부담으로 수익성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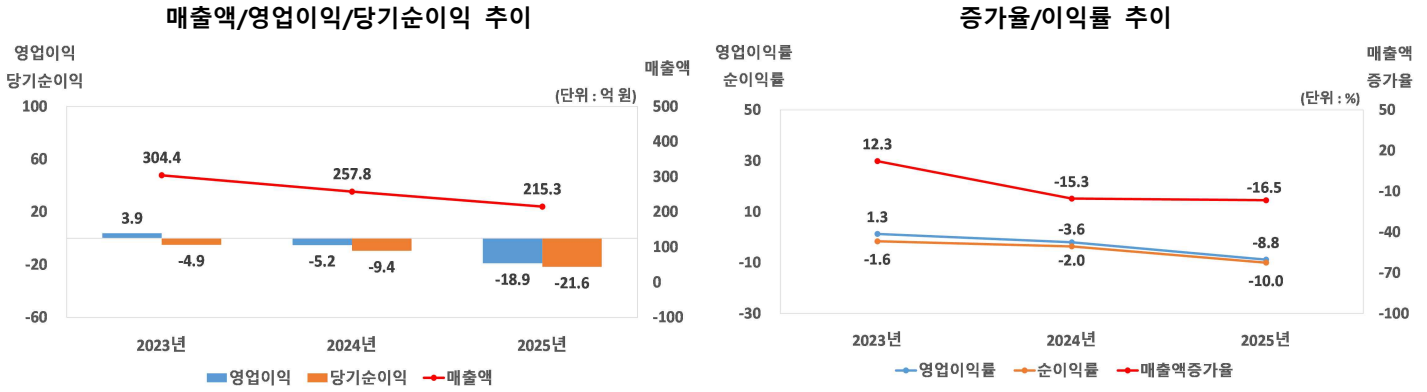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3.9억 원, 2024년 -5.2억 원, 2025년 -18.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역시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85.5%, 2024년 86.0%, 2025년 89.5%로 증가하였으며 판관비율 역시 2023년 13.2%, 2024년 16.0%, 2025년 19.3%로 늘어나 영업손실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개발비는 2024년 8.7억 원에서 2025년 0.3억 원으로 지출이 줄었으나, 인건비(급여)가 2024년 5.5억 원에서 2025년 7.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대손상각비 1.0억 원 발생하였다.

3년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4.9억 원, 2024년 9.4억 원, 2025년 21.6억 원으로 3개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순이익률은 2023년 -1.6%, 2024년 -3.6%, 2025년 -10.0%로 하락하였다. 2025년에는 보조금 1.7억 원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확대와 영업외비용(5.2억 원) 부담으로 인하여 순손실 규모가 확대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 동사는 매출 축소와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조달우수제품 및 코일발전기 매출의 안정적 확대, 제품 중심 매출 비중 유지, 판관비 효율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GAAP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 및 자본 확충 도모

총자산은 2023년 180.2억 원, 2024년 171.4억 원, 2025년 229.3억 원으로 2025년에 확대되었다. 유동자산은 2023년 79.4억 원, 2024년 74.6억 원, 2025년 120.2억 원으로 2025년에는 현금성자산이 전년(19.4억 원)에서 29.8억 원으로 증가하여 유동자산이 확대되었다. 유동비율은 2023년 61.6%, 2024년 59.7%, 2025년 68.9%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0%를 하회하며 단기 유동성 부담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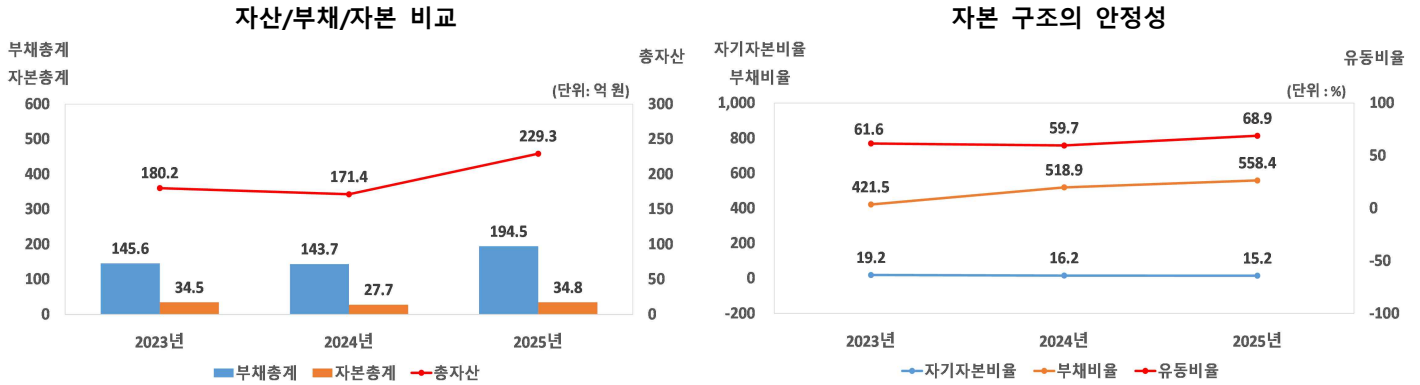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145.6억 원, 2024년 143.7억 원, 2025년 194.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421.5%, 2024년 518.9%, 2025년 558.4%로 높은 수준이었다. 2025년 기준 단기차입금 77.3억 원, 장기차입금 14.0억 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 상환 예정 장기차입금은 7.5억 원이다. 다만,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아 금리 및 차환 부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총계는 2023년 34.5억 원, 2024년 27.7억 원, 2025년 34.8억 원으로 2025년에 회복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19.2%, 2024년 16.2%, 2025년 15.2%로 약화되었고, 3년간 결손금 규모는 2023년 0.2억 원, 2024년 13.1억 원, 2025년 30.6억 원으로 결손이 확대되었다. 이에 동사는 2025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 및 자본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20.0억 원의 자본이 유입되었다.

동사는 2025년 자본 보강으로 재무완충력 회복을 도모하였으나, 낮은 유동비율과 높은 부채비율, 순손실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재무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매출 회복을 통한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차입 부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GAAP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GAAP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304.4	257.8	215.3
매출액증가율(%)	12.3	-15.3	-16.5
영업이익	3.9	-5.2	-18.9
영업이익률(%)	1.3	-2.0	-8.8
순이익	-4.9	-9.4	-21.6
순이익률(%)	-1.6	-3.6	-10.0
부채총계	145.6	143.7	194.5
자본총계	34.5	27.7	34.8
총자산	180.2	171.4	229.3
유동비율(%)	61.6	59.7	68.9
부채비율(%)	421.5	518.9	558.4
자기자본비율(%)	19.2	16.2	15.2
영업현금흐름	22.3	-30.7	-3.2
투자현금흐름	-6.3	2.7	-2.7
재무현금흐름	-4.8	28.0	16.3
기말현금	19.2	19.4	29.8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주요제품별 매출은 2023년 254.3억 원에서 감소한 이후, 2025년 164.0억 원으로 회복하였고, 2026년 예상 175.6억 원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4년에는 조달우수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으며, 관급 프로젝트 발주 시점과 제품별 납품 구조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5년부터 코일발전기 매출이 70.2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되면서 주요제품별 매출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코일발전기와 조달우수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별로는 코일발전기가 2026년 75.8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어 주요제품별 매출의 약 43%를 차지하며 핵심 매출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달우수제품은 2025년 53.7억 원에서 2026년 58.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인증 기반 제품 판매가 일정 수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사의 매출 구조가 기존 조달우수제품 중심에서 코일발전기와 조달우수제품이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조달우수제품 매출은 2023년 대비 낮아, 향후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관급 발주 회복과 신규 인증 제품의 매출 전환이 필요하다. 기타 제품 매출은 2023년 63.4억 원에서 2025년 2.9억 원으로 급감해 제품 분류 변경 또는 매출 인식 구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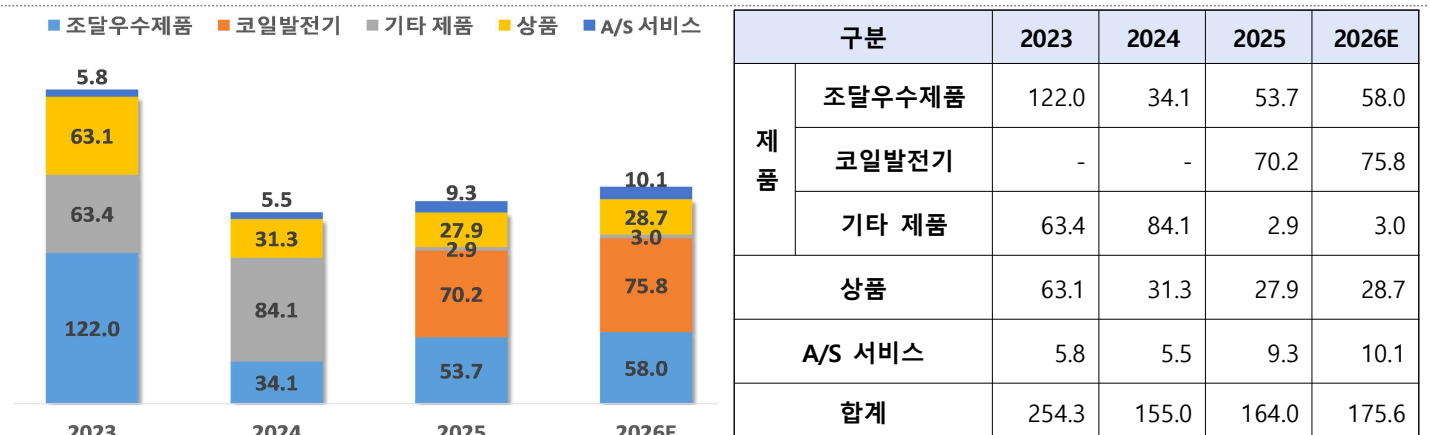
상품 매출은 2023년 63.1억 원에서 2025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26년에는 28.7억 원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 상품 판매보다는 자체 제조 제품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기반 제품 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특정 제품군의 수주 변동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A/S 매출은 2025년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 후, 2026년에도 10.1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상발전기는 장기간 운용되는 설비로 정기 점검, 부품 교체, 성능 유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A/S 부문은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은 매출원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급·민수 납품 실적이 누적될수록 유지보수 기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계절적 발주 공백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코일발전기와 조달우수제품이 단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A/S 부문이 안정적 보완 매출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급 프로젝트의 발주 시점, 조달우수제품 매출 회복 속도, 코일발전기 수주 지속성, 원재료 및 엔진 조달 비용 변동에 따라 실적은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고효율·저매연 발전기, 디지털 AVR 제품, 방산 및 데이터센터용 비상전원 제품의 수주 확대 여부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동사 제품별 연간 매출 전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자본 확충과 방산사업 강화, 데이터센터·대형 전력수요처 대응을 통해 성장 기회 모색 중

동사는 비상발전기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을 확충하고, 워드피에스 지분 확대로 방산사업 기반을 강화하였다. 향후 사업은 법정 비상전원 수요와 공공·군납 시장의 안정적인 발주를 기반으로 하되, 데이터센터, 대형 산업시설, 연구개발센터 등 고신뢰 전원설비 수요와 방산용 발전기·전원공급장치 수요가 추가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최근 변동사항

자본구조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2024년 말 기준 우선주 발행주식 수는 366,128주였으나, 2025년 12월 30일 신규 상환전환우선주 269,180주가 발행되어 2025년 말 기준 상환전환우선주는 635,308주로 증가했다. 이번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자금조달과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말 자본금은 2024년 말 7.1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우선주 발행을 통해 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다만 상환권과 전환권이 결합된 증권 특성상 향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상환 부담, 보통주 전환에 따른 희석 가능성, 우선주 배당 및 재무비용성 부담이 병존한다. 따라서 이번 발행은 성장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향후 자본정책 및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 발전기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종속회사 워드피에스에 대한 지분 확대가 확인된다. 동사는 2025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워드피에스 지분율을 79%에서 92.2%로 확대했다. 이는 동사가 기존 비상발전기 사업에 더해 방산 전원장치 및 발전기 관련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 건설경기와 공공 예산에 의존하던 수요 구조에서 국방 프로젝트 기반 수요가 보완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사업 전망은 비상전원 설비의 필수 수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용량 전력수요처 증가, 방산 전원장치 공급 기반 확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디젤엔진 비상발전기는 정전 발생 시 핵심 설비의 운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로, 공공시설, 병원, 터널, 항만, 산업시설 등 전력 중단 리스크가 높은 인프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상 비상발전기 사업은 경기 변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법정 설치 의무, 안전 기준, 기존 설비의 교체 수요와 연동되는 성격이 강하다.

민간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 대형 제조공장, 복합건축물 등 전력 안정성이 중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냉각설비의 상시 가동이 필요하고, 전력 중단 시 서비스 장애와 데이터 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고신뢰 비상전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은 대용량 전력 인프라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비상발전기 및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에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은 동사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공서,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은 안전 및 재난 대응 차원에서 비상전원 설비를 필요로 하며, 관련 발주는 예산 집행 주기와 시설 유지·교체 수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동사는 관급 및 군납 시장에서 납품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조달시장 대응 역량과 품질 관련 인증을 바탕으로 공공 발주 시장에서 일정한 사업 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산 부문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전략적 의미가 커질 수 있는 영역이다. 동사의 종속회사 위드피에스는 대포병탐지레이더, 국지방공레이더, 비호복합 냉·난방장치용 발전기, L-SAM 주전원공급유닛 등 방산 체계에 적용되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방산 전원장치는 일반 민수 발전기보다 납품 규격, 신뢰성, 내환경성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체계사업 일정과 연계될 경우 중장기 공급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단순 비상발전기 제조를 넘어 전력 안정화 솔루션으로 확장 가능성이 중요하다. 기존 디젤 비상발전기는 고출력과 즉시 가동성이 장점이나,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분산전원 등 보완 기술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영구자석형 발전기 기술, 무정전 비상발전기 시스템 개발 역량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주요 인프라 시설이 요구하는 고효율·고신뢰 전원공급 체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기존 관급·군납 기반의 비상발전기 사업을 토대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산업시설의 전력 안정화 수요, 방산 전원장치 수요를 함께 확보할 경우 사업 확장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민간 설비투자 회복 속도, 공공 발주 일정, 방산 프로젝트별 납품 시기, 대체 전원기술과의 경쟁은 향후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동사는 대용량 비상전원, 방산용 전원공급장치, 고신뢰 전력 솔루션을 중심으로 제품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관급·민수·방산 수요를 균형 있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션테크(21732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6.0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션테크	○	○	○

* 2026년 3월 25일 주가급등 사유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4월 1일 매매거래 재개 사유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4월 7일 매매거래 재개 사유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4월 21일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 사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5월 2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5월 21일 주가급등 사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